

01 교회소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을 맑고 깨끗한 마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02 생명의 말씀_ 지혜 시리즈 5

양순의 지혜

양순의 지혜는 선한 말과 행함으로 믿음을 심어주며, 진리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한다.

03 기획특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의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본다.

04 간증

“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울증을 치료받고 창력이 회복된 박말희 집사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인도 다우슨 생스 목사 간증.

만민뉴스

제612호 2013년 12월 1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결과 사랑, 소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찬양

전 세계 만민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영적인 믿음 더해



가사와 선율 하나하나에 하나님 숨결이 담긴 '만민찬양'이 성도들 마음을 주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찬양마저 날로 세속화돼가는 현세대를 안타까워하며 찬양, 무용, 율동팀 등으로 구성된 예능위원회를 조직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자 힘써왔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주셨듯이(신 31:19, 22) 우리 교회에도 세계 만민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만민찬양'이다.

국내외 1만여 자립교회 성도들은 각종 공예배와 모임, 기도회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민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화되며, 회개와 통회자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을 입고 있다.

만민찬양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이미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해 보급

됐으며, 이 외에 스페인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인도 타밀어로도 번역돼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인도 마두라이만민교회 펠시 라자두라이 선교사는 “만민찬양을 타밀어로 번역해 부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은혜와 감동이 임하며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이다만민교회 찬양인도자 쿠마가이 스미가 자매는 “만민찬양은 일반 복음성가와 달리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또 멜로디가 매우 아름다워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돼 감사와 더불어 성령 충만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각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만민찬양을 보급하고 있는 드미트리 페트롭스키 목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에 감탄했고, 가사 또한 형용

할 수 없이 은혜롭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각종 행사나 집회 시 만민찬양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민찬양은 현재 1집 '목자의 마음', 2집 '헌신', 3집 '천국', 4집 '소망', 5집 '공간'이란 타이틀로 발매됐으며, 이중 26곡을 선곡해 수록한 일본어 앨범도 제작됐다.

한편, GCN 방송(www.gcntv.org)에서는 한주경 선교사가 진행하는 '찬양드려요' 프로그램을 통해 만민찬양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마음가짐과 발성법, 호흡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만민찬양 편곡자 이진 집사가 진행하는 '향기' 프로그램에서는 만민찬양에 담긴 영적 의미와 기초적인 음악이론, 그리고 반주법을 배울 수 있다.

포토뉴스

아마존닷컴, 『십자가의 도』 『천국』(상) 중국어판 전자책 발간

지난 11월 27일,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www.amazon.com) 전자책 서비스 '킨들' 코너에서 이재록 목사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상) 중국어 간체 판을 신규 발간해 판매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 저서는 9개 언어(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포르투갈어, 일어, 핀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90여 종의 전자책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

한편, 화교권 문서선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대만의 유명 기독교출판사인 천은 출판사는 대만 전역 53개 서점과 미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 31개 서점을 통해, 또한 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에서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재록 목사 저서 중국어 간체 10종을 출판 유통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17)

양순의 지혜

내 가족, 명예와 권세, 자존심, 자신의 안일함을 구하는 모든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모의 유산을 공평히 나누도록 자신의 형에게 권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유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형이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뜻밖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후로도 형제간에 감정 상할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양순의 마음을 이뤄야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볼 수 있습니다.

2.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자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12절에 “...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양순의 마음을 이루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어렵다’며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감내해 나갑니다.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보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평안하며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택해 행하게 되지요.

우리가 양순의 마음으로 범사에 자족하며 선을 행해 나가면 성령님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혹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 행합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어린 아들에게 “나갔다가 올 테니까 동생 잘 돌보고 숙제도 해 놓으렴.” 당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숙제는 물론 청소까지 깨끗이 해놓은 것입니다. 숙제를 다 하고 놀아도 될 텐데 엄마 마음을 헤아려 자기 할 일 이상을 한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와 같이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범사에 더 좋은 것을 분별해 행하며 하나님을 명하여도 하나님 마음에 맞춰 둘, 셋 혹은 그 이상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매우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한쪽은 진리이고 다른 한쪽은 비진리라면 당연히 진리를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진리라면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양순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양순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을 행합니다.

4. 양순의 지혜가 임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행함과 고백을 보면 양순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기 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절제했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백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물론 먹기 전에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유통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롬 14장). 단순히 음식으로 먹는 것일 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꺼림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단순히 음식물로 생각하고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롬 14:23).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를 본 사람이 실족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설령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함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밝은 영감과 지혜도 더하셨기에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뿐 아니라 결혼이나 이혼, 가정과 일터에서의 문제, 성령의 은사, 성찬식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지혜와 명철로써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양순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택함으로 하나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으며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진리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선과 진리로 가득해 양순의 지혜를 받으며 단물만 내는 입술의 열매,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문제의 핵심을 분별해 상대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영적인 선과 진리로 가득찬 마음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순한 사람은 상담할 때에도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사심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이나 감정이 앞서 눈이 가려지지만 사심이 없으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심이란 자기 욕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6(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매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신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며 무한한 공간 자체이시므로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없으시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바로 알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을 깨우쳐 신속히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 바란다.



인류 문명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성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찬란히 꽃피고 있었다. 따라서 헬라이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는 모든 문자를 대표하며, '알파와 오메가'는 이 땅의 모든 지식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문자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명이 발전하고 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라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뛰어난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이것을 기록할 문자가 없으면 후세까지 전수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사람들은 쌓은 지식을 활용해 지혜로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한없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명의 시작점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 끝점도 분명히 정해져 있다. 즉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작되고, 또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고 문명이 발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문자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수 있고 후세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문명이 발달해야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는 성부 하나님의 분야를 나타내며, 인류의 모든 지식과 문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 지으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인간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성자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해당한다. 이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곧 십자가 구원의 섭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님께서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역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처음'이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설명하고 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므로 온 인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든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후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

수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골 1:6). 그런데 하나의 열매가 맺히면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씨가 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성도들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기에 오늘날 못 영혼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매 재림하심으로 인류 구속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을 의미한다(살전 4:16-17). 이처럼 재림을 통해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주님께 대해 '나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고 나면 다 거둬들이고 나중에 이삭을 줍듯이 공중재림으로 인간 구원의 섭리가 마쳐진 뒤에는 7년 환란 중에 이뤄지는 이삭줍기 구원이 있다.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이 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영혼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들을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작과 끝'은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며 성령 하나님의 분야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은 죄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마음 안에 심겨진 죄성들과 악을 뽑아버리고 선과 사랑을 채울 때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만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도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인간 경작을 받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므로 마음이 곤고해진다. 이때도 성령은 성도들을 대신해 간구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롬 8:26).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을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구약시대에도 많은 일을 감당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사람의 마음을 할렐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밭을 개간해 성결을 이룬 참 자녀로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시면 끝이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성도들은 신부단장에 힘써야 한다.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2.15~12.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영혼육 9-13 생명의 씨 2-4 마음밭을 개간하자 1-2 요한일서 강해 11-15 일곱교회 1-5 창세기 강해 11-15, 104 우리삶의 등불 2-3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결을 위한 자세 1(이수진 목사) 은혜를 입은 사람 (이미영 목사) 영의 세계 5(최선 목사) 생명수 10(신동초 목사) 게으름 (김수정 목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총만 (김승신 전도사) 역지사지 (고경아 교육전도사)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7 찬양드려요 5-8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5-8 항기 5-8 • 우린 하나 7-8 플로리스트 5-7 • English 3-4 아름다운 예배 2-3 찬양과 경배(3) 81-86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연합대성회 3 이스라엘연합성회 종합편 워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p>해외성회 프로그램</p> <p>GCN 방송</p>
--	--	--	--	--------------------------------

“우울증을 치료받고 청력도 살아났어요”

저는 교회에 다닌다고 했지만 20여 년이 지나서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우치며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말았지요.

당시 남편은 사업 실패로 술을 벗 삼아 지냈고, 그 후 큰 딸마저 결혼해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잦은 이사로 삶은 불안정했고, 남편과 대화마저 없으니 부정적인 성격에 우울증까지 와서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이 그리도 많은데 내 삶은 왜 이렇까?' 하는 생각에 큰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기독교 관련 베스트셀러들을 읽으며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친구인 최복순 권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웬지 이 교회에 가면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2004년 10월, 만민중앙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으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당회장님의 겸손하고 단아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당회장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으며 믿음에 대해 알게 됐고, 『믿음의 분량』을



박말희 집사 (2대대 19교구, 61세)

읽으면서는 제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왜 제게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 또한 충분히 깨우칠 수 있었지요. 제 영혼은 날아갈 듯이 기뻛고

충만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우치며 신앙생활하니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어느새 우울증은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30여 년 만에 청력이 살아나는 권능을 체험해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여선교회 기관장 사명도 맡아 기쁨으로 감당했지요. 또한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오십견도 치료받고 머리술도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는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할 수 있었지요.

저는 30여 년 전, 심한 충격으로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조 고막을 삽입하는 수술을 권했지만 당시 삶에 의욕이 없었기에 수술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몸이 피곤할 때에는 중이염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중이염은 치료됐지만 왼쪽 귀가 잘 안 들려 예배 때 환자 기도를 꾸준히 받았지요.

그러던 지난 6월, 부엌일을 하던 중 갑자기 왼쪽 귀로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왼쪽 귀에 대고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역시 선명하게 소리가 들렸지요. 8월 초에 개최된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시간에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후에는 더욱 또렷이 들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참 목자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을 체험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는 이재록 목사님이십니다”

다우슨 샘슨 목사

(인도, 하나님의 성회 은혜교회 당회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한 저는 목회자가 된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요.

바로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된 일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 했지만 많은 영혼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은 달랐지요.

2001년, '이재록 목사 초청 케냐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대성회가 참석했습니다. 감사 이재록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대대히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치병과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받고, 목발과 휠체어를 버리고 걷고 뛰는 등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보며 매우 놀라웠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이재록 목사님이 시

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로부터 한정희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돼 오셨지요. 저는 매우 기쁜 마음에 선교사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002년에는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대 최다 최고 성회였던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운집한 초대형 집회에서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고 개종했으며,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 사이에 회자되고 있지요.

지난 10월, 저는 사모하던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대하면서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며 사랑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진정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권능의 목회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나의 만남은 제 목회 사역을 새롭게 정립하는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앞길을 예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4, 010-9818-9833
- 서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성결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성결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성결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성결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성결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성결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성결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8291-7017
- 새청주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성결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성결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성결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성결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성결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성결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성결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성결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성결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성결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성결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성결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성결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성결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성결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